

# 개발원조위원회

## 1. “저소득국가 개발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한 세미나 개최

개발원조위원회는 9월 14일 OECD 본부에서 IMF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국가 개발을 위한 IMF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가. IMF 발표 요지(Mr. Plant 부국장)

IMF는 정책조언, 역량강화 노력, 성장과 외채탕감을 위한 양허 재원 제공 등 세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저소득회원국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저소득국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원조를 받고 있다. 국제지수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IMF로부터 인출이 필요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조공여국들은 수원국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IMF 보고서에 근거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IMF가 저소득국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IMF 4조에 따른 협의, 사후적 프로그램 평가(post program monitoring) 등 제반조치에 문제점이 있다. IMF의 평가로 인해 해당 저소득국으로 유입되는 공공자금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거나 반대로 자본이 일시에 유출되는 결과(large swings)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MF가 특정 저소득국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경우 야기되는 자본유입의 급격한 감소 등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주저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간 IMF는 저소득국 거시경제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운용해왔으나, 문제점이 나타나 새로운 메커니즘인 정책모니터링제도(Policy Monitoring Arrangement: PMA)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원조공여국이 IMF 평가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고 IMF가 평가를 원하는 저소득국의 경제분야에 대해 주요 원조공여국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나. 토의내용

IMF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은 IMF의 거시경제정책 평가를 원조 제공시, 특히 예산 지원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천년개발 달성을 위한 구좌(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 대상국가 선정시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저소득국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IMF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노르웨이와 일본은 저소득국에 대한 IMF의 평가와 자국의 원조제공을 자동적으로 연계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일본은 IMF 평가가 해당 저소득국에 대한 급격한 자원 유입과 유출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네덜란드는 수원국에 대한 원조 지속 여부는 IMF 평가와 함께 해당 공관의 판단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IMF가 해당 저소득국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경우(off signal)에 이 조치가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IMF 평가분야에 대해 대부분 원조공여국 참석자들은 IMF가 회원국의 거시정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아울러, ① 저소득국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원조와 국제기구의 양허성 차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세수 확보방안 등에 대한 연구, ② 분야별 자원조달에 대한 연구, ③ 거시정책 외에 보다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조조정분야 등은 세계은행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양 기구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개진되었다.

## 다. 참고자료

Role of IMF in Low- Income Countries Over Medium Term(SM 03/257, July 22,2003)/www.imf.org

Signaling by the Fund - a Historical Review(SM/04/251, July 16, 2004) /www.imf.org

## 2. OECD 개발원조위원회와 비회원국간의 협력방안 논의

2004년 10월 21일 DAC 의장과 한국을 포함한 OECD non-DAC 7개국 간 회의가 개최되어 이 국가들의 DAC정책에 대한 평가 및 DAC의 비회원국협력사업(outreach)을 논의하였다.

### 가. DAC에 대한 평가

OECD non-DAC국가들은 DAC의 정책이 자국의 개발협력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전반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자국내 개발협력 담당인력의 부족, 고위급 인사의 개발협력에 관한 인식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DAC 논의가 추상적이기보다는 원조집행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터키는 DAC과 비회원국간의 체계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회원국의 개발협력 분야의 동질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언급하였고, 슬로바키아공화국은 DAC 가입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며, DAC에서 추상적인 논의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폴란드는 DAC의 제반정책을 많이 참고하여 2003년

10월 원조전략을 완성하였으며, 향후 DAC 가입을 위해 DAC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DAC의 제반정책, 특히 원조조화,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치안체제 개혁 등이 우리의 원조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DAC 사업이 개도국의 현실과 수요를 좀 더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1992년 작성된 “최빈개도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에 관한 권고”의 취지는 좋으나, 결과를 보면 최빈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통신, 도로 등 경제인프라에 유입되던 원조가 상업성이라고 판정을 받아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민간사업자들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빈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 나. DAC 협력사업

참석자들은 “원조 담당관에 대한 DAC의 브리핑 실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터키, 체크, 슬로바키아공화국 등

은 “약식 검토회의 수검”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슬로바키아공화국은 비회원국의 개발협력 관련 통계작성 역량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대표는 “DAC의 브리핑 실시”,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설치” 방안을 적극 지지하였고 “약식 검토회의 수검”에 대해서는 현재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 일부 기관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DAC 의장은 “약식 검토회의 수검”에 대한 참석자들의 유보적인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동 검토회의가 비회원국의 원조정책에 크게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2004년 12월 8~9일간 개최될 고위급회의(SLM) 직전인 12월 7일에는 DAC 비회원국 본부 간부와의 대화를 개최하여 DAC 추진사업 소개, 2005년 3월 초 파리에서 개최되는 원조조화에 관한 제2차 고위급포럼(HLF 2) 소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권해룡 주OECD대표부 참사관  
hrkwon84@mofat.go.kr】